

유럽에서 하나로 된 공동의 기억에 대한 토론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겪고 있다. 역사에 의한, 특히 2 차 대전을 통한 구체적인 경험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하나의 단일한 기억으로 재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들을 하나로 된 유럽의 공동의 기억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까? 다양한 경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의 유럽적 기억으로 묶어낼 수 있을 까? 분열된 역사를 하나의 공동의 역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것인가? 기억의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본 심포지엄은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적 통합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 EPRIE 2013> 의 한 섹션으로 유럽의 다양한 기억의 컨셉들에 대해 토론한다. 어떻게 <하나로 된 유럽적 기억의 컨셉>을 실현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풀어보려고자 한다. 유럽의 경제와 정치계의 저명 인사들이 자신의 테제들을 소개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이번 심포지엄에 진심으로 초대하는 바이다.

유럽 공유의 기억과 화해

일시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18-20시

장소 서울 고테 문화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32,
140-901

언어 독일어-한국어 동시통역
(원고는 영어)

참가신청 symposium@eprie.net



발표자

리타 슈스무트 (Rita Süßmuth) 교수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독일연방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폴란드 서부 국경의 인정에 대해 큰 기여를 하였다. 2006년 1월 이래로 독일-폴란드 연구소의 회장으로 지내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이스탄불 독일-터키대학 내 독일 컨소시엄(독일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에티엔 프랑소아 (Etienne Francois) 역사교수는 독일과 프랑스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몰두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Centre Marc Bloch” 라는 독일-프랑스 사회학 연구센터의 창립 소장이었다. 그리고 2008년까지 베를린에 있는 프랑스 센터에서 강의했다.

부워지미에시 보로지예이 (Włodzimierz Borodziej) 교수 2012년부터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대학의 “20세기 동부 유럽”이란 임레-케르테즈-컬리지에서 공동총장을 맡고 있다. 1996년 이래로 바르샤바 대학의 역사 연구소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바르샤바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1997년- 2007년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위원회의 회장, 1992년-1994년 폴란드 의회 내 학술부서 총장을 지냈다.

유럽 공유의 기억과 화해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프로그램 진행

18:00

환영인사

스테판 드라이어 박사, 서울 고테 문화원 대표
한 나탈리 정화,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 대표

18:10

유럽내 화해의 과정

리타 슈스무트 교수, 전 독일연방 의회 의장, 전 가족·청소년·체육·여성부 장관

18:30

유럽의 분열된 현실로서의 기억

에티엔 프랑소아 교수, 전 베를린 자유대학 프랑스센터장

브뤼셀 유럽 역사의 집

브뤼지미에시 보로지예이 교수, 바르샤바 대학

19:30

토론

19:55

맺음말

20:00

끝

EPRIE, www.eprie.net, info@eprie.net, c/o Korea-Verband, Rostocker Str. 33, 10553 Berlin / Germany

주최

KOREAVERBAND



협력

Robert Bosch Stiftung



지원

